

# '천만송이 국화축제' 오늘 개막

### 국내 첫 홀로그램 엑스포, 전시·체험 다채 11월 3일까지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개최도

익산에서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다가오는 주말, 지역에서는 25일 시작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홀로그램 엑스포, 보석대축제까지 축제 열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의 대표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25일부터 열흘 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형형색색의 국화꽃과 LED 조명이 더해져 화려한 야경은 물론 매일 새롭게 진행되는 감성 포토존, 나만의 인생샷, 프로포즈와 웨딩마치 재현 이벤트, 사랑고백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 대표 농산물인 탐마루 쌀과 고구마 등 우수 로컬푸드가 판매되며 국화꽃 브로치, 천연 수분크림,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국화 관련 체험관도 운영된다.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한 홀로그램 엑스포가 익산에서 25일부터 사흘 동안 원광대 동문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한국조명ICT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20여개 홀로그램 선도 기업이 참가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전시·홍보한다.

특히 참여기업을 위한 기술 매칭 프로그램과 IP컨설팅 등이 운영되며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5G 기술 홍보와 제품 전시로 불거리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보석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다음달 3일까지 왕궁면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60여개 보석 전문업체들이 선보이는 희귀한 보석들을 감상할 수 있고 24K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보석을 30% 할인된 가격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래된 보석 리세팅, 보석 가공 시연이 축제기간 내내 이어진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주말 늦가을 정취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했다"며 "도심 속 국화향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과 이색 이벤트로 가족, 연인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장에너지는 전북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사후관리업무 사전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군장에너지, 환경통합 배출시설 설치 운영허가 취득

군장에너지(주)는 전북 도내에서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환경통합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절차 간소화 및 과학적·기술적 허가를 위한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으로 시설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환경우선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준수에 필요한 통합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군장에너지는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위원)과 "통합허가 후 사후관리 업무의 사전준비를 위한 군장에너지(주)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사후관리 업무가 조기에 안착되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 내 통합

허가 사업장, 전문기관 등과 통합 환경관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후관리 초기 안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 업무협약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관리·지원하며 내부직원의 사후관리 역량강화와 기술적 전문지식의 제공 등 협약 사업장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전북지방환경청 차승현 환경관리과장은 "통합허가 후 사후관리 업무의 사전준비를 위한 군장에너지(주)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사후관리 업무가 조기에 안착되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금강하구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 군산시-서천군 공동추진... 생태·어업 등 중앙부처 건의 실효성 높이기로

군산시가 금강하구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웃사촌인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손을 맞잡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천군과 상생발전을 위해 '금강하구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지난 6월 열린 '2019년 제1차 군산·서천 행정협의회'에서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동 추진 안건을 채택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용역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내

년도부터 용역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군산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금강하구를 기반으로 금강도 개발, 해수유통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양 시군이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의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향만, 어업, 산업, 도시재생 등 각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한 지역연계 협력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봉근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군산시와 서천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특별한 날 기념 포토존 운영 계획

### 연말부터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군산시가 출생·혼인신고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 계획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군산 추억 기념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 예정인 포토존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셀프 촬영기기를 설치해 사진을 출력할 수 있고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하다.

특히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게 촬영기기에 출생·혼인관련 축하 문구 제공과 출생·혼인신고 후 포토존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는 기념액자까지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경화면에 군산시의 대표관광지인 고군산군도,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군산시간여행 축제 등의 이미지를 등록하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 시 관광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사진 출력과 액자제공 서비스는 예산확보 후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민원실내 포토존 설치로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민원실이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엔바이콘과 도시재생 업무협약

### 저렴하게 제품 제공·내년 NS홈쇼핑 음식경연대회도 지원

익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립그룹 의식부문 자회사인 (주)엔바이콘과 중앙동 및 인화동, 송학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음식·식품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3곳(중앙동, 인화동, 송학동)의 음식·식품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 추

진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내용에 포함된 음식·식품 문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신선한 제품들을 사업지역 내 청년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내년에 익산에서 개최될 NS홈쇼핑 음식경연대회도 적극 협력 및 지원할 계획이다.

(주)엔바이콘 전상욱 대표는 "국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 음식·식품 관련 분야를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고 추진할 수 있어 뜻깊

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 최대 식품전문기업인 하립그룹의 자회사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특화거리 조성 및 연계한 먹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송학동 KTX 익산역 서편과 인화동 남부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각각 167억원과 142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 인구감소 해법 100인 원탁토론회

익산시는 2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시민 100인 인구정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저출산과 청년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상황을 모색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대학생, 귀농·귀촌자, 주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익산시민으로 산다는 것!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며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익산 청년들, 익산에 남기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 △귀농·귀촌자들의 '익산 선택 이유와 익산에서의 삶' △익산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 △인구늘리기 릴레이 협약의 방향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작 실행 방안 등 5개의 토론제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여류방화 단기 인턴 사업의 보완점과 단기 인턴 사업장 다양화 방법, 청년들의 인구 유입 방안, 익산을 선택한 귀농·귀촌인들의 이유와 삶, 귀농·귀촌인 지원방안, 인구늘리기 릴레이 협약기관의 역할,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